

# “사랑은 나누는 만큼 더 멀리 퍼져 나갑니다”

2026

새해 희망 키워드 <1>나눔

62년째 봉사활동 박중수 치과의사

기후위기부터 차별과 갈등, 경기 침체와 빈곤까지, ‘위기의 시대’다. 그럼에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지만 큰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살만한 세상을 위해 나눔·용기·연대 등의 키워드를 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전한다.

“새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손길을 보태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만큼 더 멀리 퍼져 나가기란요.”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황금동의 한 치과의원에서 만난 박중수(85) 원장은 “하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봉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올해도 나눔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장은 서울대 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65년 처음 의료 봉사에 나선 이후, 올해로 62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91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을 설립, 광주시 남구에서 36년째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며 무료 급식 봉사에도 나서고 있다.

그의 ‘나눔 의지’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불타고 있

1965년 치대 재학 중 첫 의료봉사  
군외관 복무 인연 광주에 정착  
독거노인 등 3만여명 무료 진료  
헌혈·구호품 모으기 등 이웃사랑  
사랑의 식당 운영 36년째 무료급식  
의료·식사 연계 돌봄거점 육성할 것

다.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새해에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사랑의 식당 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 의료 지원 공간을 만드는 안까지 구상하고 있다. ‘인간 생명이 최우선 가치’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랑의 식당을 의료와 식사를 연계한 지역 돌봄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봉사를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박 원장은 충남 논산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6·25 전쟁 직후 병환으로 조기 퇴직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성장했다고 한다. 이후 부친의 병세가 악화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입원을 시도했지만, ‘대학생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8개월여 동안 무료 진료를 거절당했다.

“벼랑 끝과 천당 사이를 오가는 시간을 보낸 끝에, 그때 받은 도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됐습



지난 2일 광주시 동구 황금동의 한 치과의원에서 박중수 원장이 사무실 벽에 부착된 봉사활동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다.

니다.”

박 원장은 대학 졸업 후 광주에서 군외관으로 복무하면서 광주·전남과 연을 맺었다. 휴일마다 섬마을부터 산골짜기 오지까지 전남 지역 무의촌을 찾

아 다니며 치료와 진료에 나섰다. 베트남전쟁에도 파병돼 일과 시간에는 군인을, 밤에는 현지 주민들을 치료했다. 그 시절 함께 무의촌을 찾았던 간호사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전역 후 광주에 개원해 정착

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로도 박 원장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만여 명에게 무료 진료를 해줬으며, 헌혈과 무료 진료 운동, 구호품 모으기, 이웃사랑 실천 운동 등도 병행했다.

1991년에는 광주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허상희 원장의 요청으로 함께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사랑의 식당’ 문을 열었다. 허 원장이 별세한 뒤인 2019년부터는 이사장을 맡아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사랑의 식당은 매일 수백명의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해왔으며, 지금까지 이곳을 다녀간 누적 인원은 법인 측 추산 300여만명에 달한다.

박 원장은 “자원봉사자와 후배 의사들, 지역 봉사단체, 각종 기관의 후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유지해올 수 있었다”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나보다 나이가 적다. 내가 배식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미안해하실 때도 많다”고 미소를 지었다.

구수를 향하기는 고령이지만, 박 원장은 봉사를 처음 시작하던 청년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올해도 봉사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한다. 2026년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꽃피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박 원장은 “어려운 이들이 어떤 힘든 순간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간절히 바라면 길은 결국 열리더라”며 “새해에는 시민들이 주변 이웃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 배수로 공사한다고 수십년 된 가로수 ‘썩둑’

전남대 수습그루 벌목...시민들 “꼭 베어내야만 했나” 지적

전남대가 배수로 공사 등을 이유로 가로수, 정원수 등 수습그루 나무를 동강내고 뿌리째 뽑아내고 있다. 공사 뒤 다른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꼭 베어내야만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생활관 9호관 앞부터 사범대학 교육융합관 앞까지 6950㎡ 구간에서 배수공사와 토공사, 포장공사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전남대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빗물받이 집수정 76개를 신설하고 배관을 새로 매설하는 작업이다. 땅을 파내고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가로수 등이 방해가 되는 만큼 벌목해야 한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 측 설명이다.

4일에도 광주시 북구 전남대 예술대학 인근 통로는 공사로 가로수 15그루가 벌목돼 행한 밀동만 드러내고 있었다.

잘려나간 나무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다. 예술대 1호관과 사범대 사이 정원에서조차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굴착·이식 작업이 진행되며 나무 10여 그루가 뿌리째 뽑혀 있었다.

북구 주민 신승철(70)씨는 “오랜만에 왔는데 나무들이 썩둑 잘려 있어 무슨 일인가 한참을 쳐

다봤다”며 “왜 이렇게까지 베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용봉동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60대 김모씨도 “매일 산책하던 길인데 나무가 잘린 걸 보고 당황했다”며 “여름이면 잎이 무성해 보기 좋았던 수십년 된 나무들인데, 공사 때문에 꼭 베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베지 않고 옮겨 심는 방법은 없었는지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예술대를 지나던 마루(56·여명)씨 역시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좋았는데, 결국 개발 논리 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 측은 “관로 매설을 위해 보도블록 교체가 필요하고, 벌목하게 설계돼 있었다”며 “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이팝나무를 다시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새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면 기존 가로수를 잠시 다른 지역으로 이식했다가 다시 옮겨심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말인 만큼 담당 부서와 통화가 어려워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최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예술대학 가로수길에 줄지어 있던 나무가 모두 베어낸 채 밀동만 남아 있다. <SNS 캡처>



광주시 공군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지난 2일 T-50 훈련용 항공기가 전복돼 있다. <독자 제공>

## 공군 훈련기 활주로 이탈 전복 조종사 2명 큰 부상 없이 구조

광주 공군항에서 비행 훈련을 하던 훈련기가 비상 착륙 후 활주로로 이탈,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4일 공군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1전비 활주로에서 1전비 소속 T-50 훈련용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전복됐다.

항공기 내에 탑승 중이던 조종사 2명은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종사들은 비행 훈련 도중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착륙 활주로를 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